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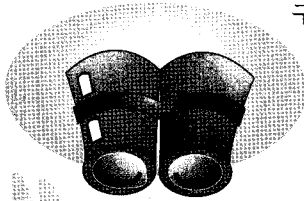
훔쳐보는 제자신이 너무 싫어요

옥복연/성상담, 성교육전문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학교와 집안에서 모범생으로 기대가 큼니다.

저희 집은 고층 아파트인데, 아파트의 간격이 좁아서 밤에는 건너편 아파트의 거실이며 안방까지 모두 보입니다. 평소에는 신경도 안 썼는데, 며칠 전에 새벽 2시까지 시험 준비를 하다가 잠이 밀려와서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못 볼 것을 보고 말았어요.

앞 등에서 빨간 불이 새어나오자 호기심이 발동해서 망원경으로 훔쳐보았는데,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중간고사 쓰는 신경도 안쓰고 훔쳐보기를 계속하며, 맨날 밤만 되면 베란다에서 얼얼거리느라 버릇이 되어 버렸어요. 밤 12시가 넘으면 다시 베란다에 와서 있는 제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싫어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 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고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어느 날 베란다를 통해서 본 장면으로 인해 밤마다 베란다에서 서성거리게 되었군요. 하지만 스스로 훔쳐보는 것이 중독이 되었다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스스로 고칠 수도 있는 용기있는 청소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적인 호기심이나 충동이 많고 조그만 성적 자극에도 쉽게 흥분할 수 있는 청소년기에 남의 인방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하지요.

우연히 남의 집을 엿보게 되었고, 뜻하지 않게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면서 훔쳐보는 행동이 계속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일이며, 처음에는 의도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습관이 되면 정말 고치기 힘이 든답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성적 행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습관이 되어서 남의 집을 기웃거리다가 경범죄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관음증"이라는 이상 성행동으로 발전해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지요.

남의 집을 엿보고 싶을 때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 듣는대거나, 좋아하는 여성상을 떠올리면서 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간적인 성충동으로 인해 자신의 찬란한 미래를 접을 수는 없겠지요? 행복을 얻기 바란다면 불행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머나먼 길을 가면서 행복을 쌓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한번도 부딪히지 않는 사람은 드물지요.

00년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을 딛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느냐는 00년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청소년기는 다양한 장애물로부터 스스로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00년의 찬란한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이겨내고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기 바랍니다.